



MLB 보스턴, 코라 감독과 총액 302억 원에 3년 연장 계약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가 알렉스 코라(48) 감독과 계약기간 3년, 총액 2175만 달러(약 302억 원)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첫 메달은 우리가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27일 출격
박하준·금지현, 최대한·반효진 짝 이뤄



2024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인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 출전 선수가 결정됐다.

대한사격연맹은 25일(현지시간) 박하준(KT)과 금지현(경기도청)이 짝을 이루고, 최대한(경남대)은 반효진(대구체고)과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리 올림픽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은 현지시간 기준 개최식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에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본선을 시작해 곧바로 메달을 가리는 결선



박하준



금지현



최대한



반효진

까지 치른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전하는 종목 가운데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메달이 결정되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

당초 우리 사격 대표팀은 남자 소총 에이스 박하준과 짝을 이룰 선수로 반효진을 낙점하고 대회를 준비했다. 박하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 종목에서 이은서(서산시청)와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합작할 만큼 기량과 경험 모두 풍부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반효진은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17세) 선수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사격 금메달리스트 여갑순 감독의 뒤를 이어 '여고생 신화'를 쓸 후보로 주목받았다.

사격 대표팀은 현재 또 다른 여자 소총 선수인 금지현이 현지에 도착해서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빠른 시간에 많이 쏘야 하는 혼성 종목 특성을 고려해 박하준의 파트너를 반효진에서 경험 많은 금지현

으로 교체했다.

한국은 당초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 출전권을 한 장만 확보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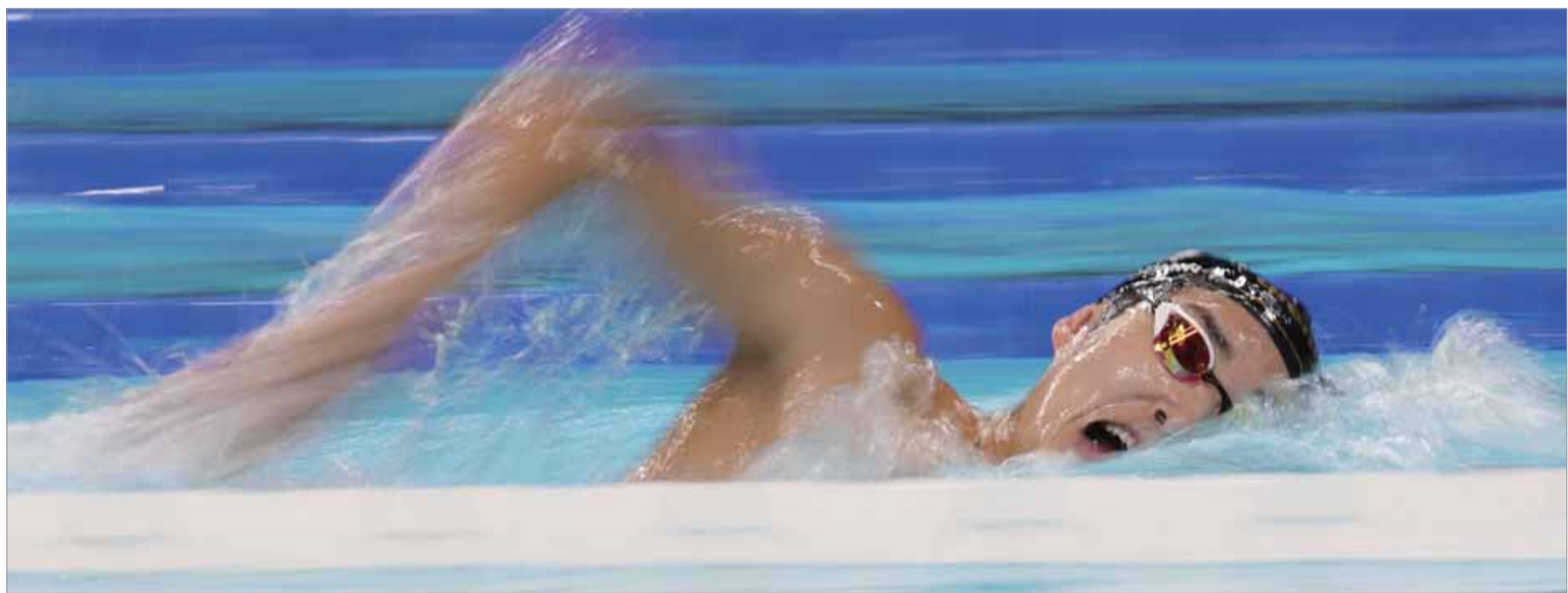
국제사격연맹(ISSF)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선수 랭킹포인트에 따른 파리 올림픽 국가별 출전 쿼터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지했고, 한국은 불투명했던 '혼성 소총 두 번째 출전권'까지 얻는 데 성공했다.

10m 공기소총 혼성 종목은 본선 1차전에서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각각 30분 동안 30발씩 쏘서 합산 점수가 높은 8개 팀이 2차 본선에 진출한다. 1발 최고점은 10.9점이다. 남녀 합계 60발을 쏘았을 때 만점은 654점이다.

본선 2차전에서는 20분 동안 남녀 선수가 각각 20발을 쏘 상위 4개 팀을 가린다.

이때 1위와 2위 팀은 금메달 결정전으로 향하고, 3위와 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연습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습

첫 금은 내가

김우민 수영 자유형 400m 출전
27일 예선 28일 결승 레이스
“후반 스피드로 금빛 물살” 각오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종목에 걸린 49개의 금메달 중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경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나온다.

프랑스 파리의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첫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

한국 수영은 김우민(22·강원도청)의 역량을 기대한다. 김우민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5시에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을 치른다. 이 종목 결승은 28일 오전 3시 42

분에 시작한다.

많은 전문가가 남자 자유형 400m 경쟁 구도를 김우민, 루카스 마르텐스(독일), 새뮤얼 쇼트, 일라이자 워닝턴(이상 호주)의 4파전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올해 남자 자유형 400m 기록 1~4위는 마르텐스(3분40초33), 워닝턴(3분41초41), 쇼트(3분41초64), 김우민(3분42초42) 순이다.

수영 전문매체 스웍스웍은 파리 올림픽 결과를 '1위 쇼트, 2위 마르텐스, 3위 김우민'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스노트와 스포츠전문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김우민의 메달 획득 실패를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김우민은 자신감이 넘친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거의 완벽하게 소화한 '강훈련'이 자신감의 근거다.

김우민은 “파리 올림픽을 대비한 훈련이 정말 혹독했다. 그래도 꿈의 무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훈련했다”며 “훈련을 잘 소화해 자신감이 자랐다. 나도 이번 올림픽이 정말 기대된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열린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우민은 경영 종목 대회 첫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섰고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탄생한 세계수영선수권 한국인 챔피언으로 기록됐다.

김우민이 파리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

르면, 2012년 런던 대회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등장한 올림픽 수영 한국인 메달리스트가 된다.

그 메달이 금빛이면, 2008년 남자 자유형 400m 챔피언 박태환의 맥을 이어 16년 만에 올림픽을 정복한 한국인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한다.

호주 전지훈련 기간 김우민을 지켜본 마이클 펠페리(호주) 코치는 “일단 첫 200m 구간까지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다음에 강하게 싸워야 한다. 특히 마지막 100m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우민은 파리 올림픽만 바라보며 강훈련을 묵묵하게 소화했다. 그 혹독한 세월을 올림픽 메달로 보상받을 시간이 다가온다.

연습